
주요국 예산안 - 영국

2017. 6.

연구책임자

윤성주 센터장
최승문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선미 전문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2
2. 예산기조	5
3. 예산안 내용	7
가. 세입	7
나. 세출	10
4. 주요 재정정책	15
가. 경제성장	15
나. 재정건전화	17
다. 기타	19

영국 개황

- FY2017-18 : 2017년 4월 ~ 2018년 3월
- 출처 : HM Treasury, Spring Budget 2017, 2017.3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3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1
- 환율 : 1파운드 = 약 1572.18원(2016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6년 경상GDP 2조 7,202억 달러(우리나라 약 1.5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16년 기준 58.1%(우리나라 2015년 기준 84.8%)
- 인구 : 6,557만명(2016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EU 탈퇴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2017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1.4%에서 2.0%로 상향 조정
- (재정수지) FY2016-17 GDP대비 2.6%였던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가 FY2017-18에 2.9%로 증가하며, 이번 의회 내에 재정흑자 달성은 불가능
- (국가채무) 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FY2017-18에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이 최고치인 88.8%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 2017 봄 예산안은 EU 탈퇴에 대비해 긴축적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인프라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방점을 두고 편성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7-18 총경상수입은 7,442억 파운드에 예상되며, 인세, 자본취득세 등의 세수 증가로 11월 가을보고서 대비 상향 조정
- (지출) FY2017-18 총관리지출 전망은 8,024억 파운드에, 지난 회계연도 대비 296억 파운드(3.8%) 증가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 기술과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
- (재정건전화) 11월 개정된 재정목표를 기반으로, '효율성 검토'(Efficiency Review)를 실시하는 등 공공지출 통제와 집행 효율성 개선을 위해 노력
- (기타) 사회돌봄 및 국가보건 서비스 강화, 근로 가정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확대, 국가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표 1> 주요 경제전망

(단위 :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GDP	2.2	1.8	2.0	1.6	1.7	1.9	2.0
- 가계소비	2.4	3.0	1.8	0.9	1.7	1.7	1.9
- 정부소비	1.3	0.8	1.2	0.7	0.4	0.9	1.3
- 기업투자	5.1	-1.5	-0.1	3.7	4.2	3.9	3.6
- 정부투자	-2.6	1.4	0.1	1.2	2.1	6.1	3.8
물가상승률(CPI)	0.0	0.7	2.4	2.3	2.0	2.0	2.0
실업률(ILO)	5.4	4.9	4.9	5.1	5.2	5.2	5.1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3, Table 1.1

- (경제성장률) 예산책임청(OBR)은 2016년 11월 *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서 영국의 2017년 실질 GDP 성장률을 1.4%로 전망하였으나, 2017년 3월 전망에서는 2.0%로 대폭 상향 조정
 - 2016년 4분기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단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의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2017년 실질 GDP 성장률을 상향조정
 - 2018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1.6%로 감소하며, 이후 2019년 1.7%, 2020년 1.9%로 점차 회복할 전망

<표 2>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단위: %)

	실적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안(2017.3월)	2.2	1.8	2.0	1.6	1.7	1.9	2.0
가을보고서(2016.11월)	2.2	2.1	1.4	1.7	2.1	2.1	2.0
변화	0.0	-0.2	0.6	-0.2	-0.4	-0.2	0.0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1, Table 1.1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3, Table 1.1

- (물가) 2016년 0.7%인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2017년 2.4%로 상승하여, 영란은

행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상회할 전망

- 영국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1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지난 1월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EU탈퇴 국민투표 이후 파운드화 가치절하(depreciation)와 국제유가 증가 추세가 2017년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으로 작용

□ (실업률) 영국 노동시장은 견고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5.4%였던 실업률은 2017년 4.9%로 감소할 전망

- 2016년 12월 고용률이 74.6%로 증가하여 4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4.8%로 하락하면서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 2015년 3,130만명이었던 고용자수가 2021년 3,250만명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나. 재정전망

<표 3>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단위: GDP대비 %)

	실적	전망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세입·세출							
경상세입(a)	36.2	36.7	36.7	37.1	37.2	37.1	37.2
총관리지출(TME)(b)	40.0	39.3	39.6	39.0	38.2	38.0	37.9
공공부문 경상지출(c)							
공공부문 순투자(d)	36.2	35.4	35.5	34.9	34.1	33.6	33.4
감가상각(e)	1.7	1.9	2.0	2.0	2.0	2.2	2.3
재정목표 및 보완적 목표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3.6	2.6	2.9	1.9	0.9	0.9	0.7
공공부문 순채무	83.6	86.6	88.8	88.5	86.9	83.0	79.8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3.8	2.6	2.9	1.9	1.0	0.9	0.7
경상적자(c+e-a)	2.1	0.8	0.9	-0.1	-1.0	-1.3	-1.6
안정성장협약(SGP) 기준							
일반정부 적자 ¹⁾	4.0	2.7	2.8	1.9	1.1	0.9	0.9
일반정부 채무 ¹⁾	87.6	87.5	87.7	87.7	86.5	84.8	83.6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3, Table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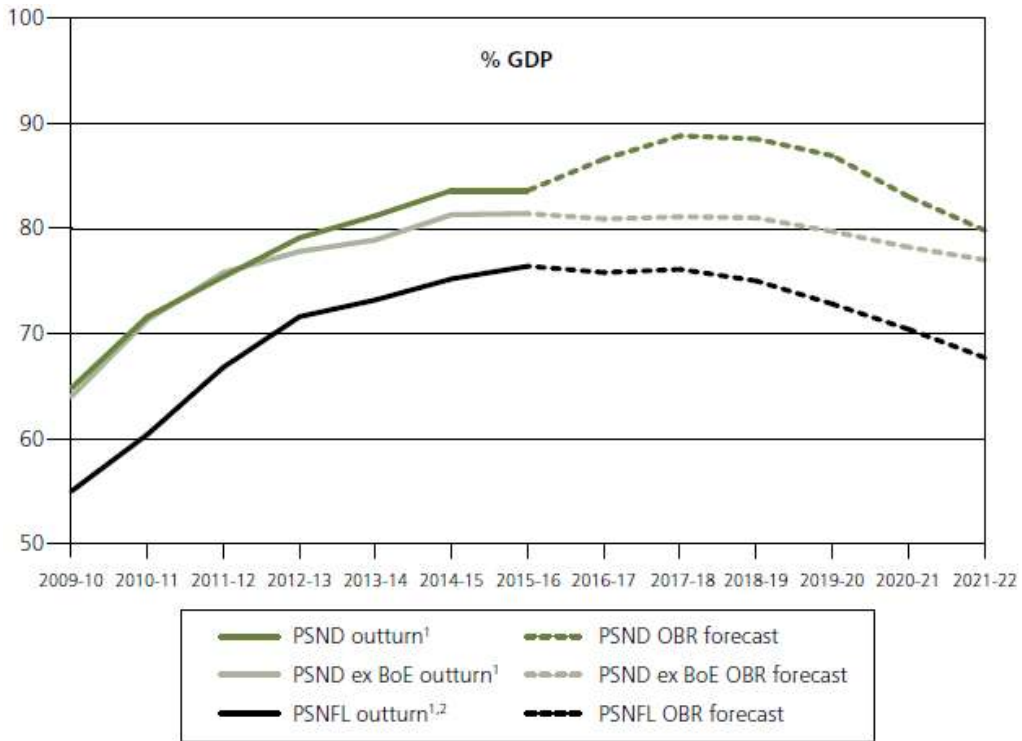
- (재정적자) FY2016-17 GDP대비 2.6%였던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가 FY2017-18에 2.9%로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 재정수지 흑자전환 달성은 전망 기간 내에 불가능하며, 2020년 예정된 차기 의회 구성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달성하도록 노력
 - 세입(법인세, 자본이득세 등) 전망 증가 및 복지지출 전망 감소로 인해,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가 11월 가을보고서 전망치 대비 76억 파운드 감소 (1,653억파운드 → 1,579억 파운드)
 - FY2020-21 GDP대비 구조적 재정수지적자가 0.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롭게 설정된 재정목표(Fiscal Mandate)¹⁾를 충족

- (국가채무) 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FY2017-18에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PSND; Public Sector Net Debt) 비율은 88.8%를 기록할 전망
 -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17-18에 최고치인 88.8%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 FY2018-19부터 GDP대비 순채무 비율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완적 재정목표(supplementary target)²⁾를 충족

1) 2016년 11월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을 수정하여, FY2020-21까지 GDP대비 구조적 재정수지적자를 2%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재정목표로 설정

2) 2016년 11월 예산책임헌장을 수정하여, FY2020-21까지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추세가 감소로 전환되도록 하는 채무준칙을 보완적 재정목표로 설정

[그림 1] 공공부문 순채무(PSND)



주: 1. FY2015-16 수치는 통계청이 발표(2017.2.22.)한 GDP를 기준으로 OBR이 추정

2. PSNFL(Public Sector Net Financial Liabilities)은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

출처: HM Treasury, *Spring Budget 2017*, 2017.3, Chart 1.4

2. 예산기조

- 2017 봄 예산안은 EU 탈퇴에 대비해 긴축적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인프라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방점을 두고 편성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체계(A fair and sustainable tax system)
 - 조세체계는 주요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해야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출 필요
 - 정부는 2016 예산안에서 2020년까지 법인세율 17%로의 인하를, 2016 가을보고서에서 소득세율 40% 적용구간 상향조정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2017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국민보험기여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간 수익이 8,164파운드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국민보험기여금(NICs) 기여율을 인상
 - 2018년부터 현행 5천 파운드인 배당세액공제액을 2천 파운드로 축소하여,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세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서비스 투자 수익을 제고
- 생산성 및 생활수준 향상(Raising productivity and living standards)
 - 생산성(근로시간 대비 산출량) 향상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의 주요 기반인 만큼, 고숙련 노동력 강화를 위해 노력
 - 16~19세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의 학습 시간을 50%이상 증가시키고,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특정 경로(sector-specific routes)를 마련
 - 상위단계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선택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자유학교(free school) 확대
 -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에서 설정한 산업 전략을 이행
 - 5G 기술 개발을 위해 혁신네트워크(National 5G Innovation Network) 신설

- 지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방정부에 6억 9천억 파운드 투입
 - 인공지능, 로봇 기술,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 등을 통해 영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1,000여개의 박사과정 신설을 포함하여, 3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연구부분에 추가로 투입
- 정부는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용확대와 근로자 세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
 - 2017년 4월부터 인적공제액이 11,500파운드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130만명이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편입될 전망
- 모두를 위한 경제(Building an economy that works for everyone)
- 생산성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마련
 - 면세 보육서비스(Tax-Free Childcare)를 제공하며, 무상 보육서비스 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
 - 의료 및 사회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FY2018-19까지 20억 파운드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돌봄 서비스를 강화
 - 지방정부의 국가보건서비스(NHS)와 응급서비스(Accident and Emergency)를 향상시키기 위해 4억 2,500만 파운드의 자금을 배정
 - 사회돌봄 서비스의 장기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제안보고서(green paper)를 준비
- 2017 봄 예산안에서 도입한 정부정책이 FY2017-18 동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총 17억파운드로 추정
- FY2017-18 정부정책으로 지출이 15억 4천만 파운드 확대되며, 세입은 1억 6천만 파운드 축소될 전망

<표 4> 2017 봄 예산안 정책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지출정책	-1,545	-1,140	-705	-450	-1,040
세입정책	-165	+475	+1,530	+1,380	+1,485
총 정책효과	-1,710	-665	+825	+930	+445

주: 1.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Spring Budget 2017*, 2017.3, Table 1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봄 예산안에서 도입한 세입정책으로 FY2017-18 1억 6천만 파운드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FY2018-19 이후에는 국민보험기여금 기여율 인상, 배당세액공제액 축소 등으로 세수가 증가할 전망
 - FY2017-18 '생산성 및 생활수준 향상'과 '조세 지속가능성 및 공정성' 정책은 3억 6천만 파운드의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 '조세 회피 및 불공정성 방지' 정책으로 1억 4,500만 파운드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
 - 국민보험기여금(NICs) 기여율 인상으로 FY2018-19에 약 3억 2,500만 파운드의 세수증가가 전망
 - 연간 수익이 8,164파운드를 초과하는 자영업자(class 4)에 대해 국민보험기여금(NICs) 기여율을 현행 9%에서 2018년 10%, 2019년 11%로 인상하여 적용
 - FY2018-19부터 연소득 6,025파운드 미만인 자영업자(class 2)에게 사회보장세 납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폐지
 -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는 주요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며, 향후 전망 기간 동안 4억 4,500만 파운드의 세수 감소 효과 발생

<표 5> 2017 봄 예산안 세입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생산성 및 생활수준 향상					
비거주재산세: 재량적 지원	-180	-85	-35	-5	0
비거주재산세: 소규모 기업 대상	-25	-20	-20	-25	-25
비거주재산세: FY2017-18 소규모 주점에 대해 천파운드 감면	-25	*	0	0	0
조세 지속가능성 및 공정성					
국민보험기여금(NICs) 기여율 인상	0	+325	+645	+595	+495
배당세액공제액 축소	0	+5	+870	+825	+930
디지털 세금 계정 구축 연기	*	-20	-65	-150	-45
인지세 삭감 2018-19로 연기	-105	+95	*	*	*
결제부과금(Aggregates Levy) 동결	-15	-15	-15	-15	-15
대형화물차량 부과금 동결	-10	-10	-10	-10	-10
Packaging Recycling Target	*	*	-5	-5	-5
조세 회피 및 불공정성 방지					
조세회피에 대한 벌금 신규 도입	+10	+50	+20	+20	+15
Qualifying Recognised Overseas Pension Schemes	+65	+60	+60	+65	+65
주식거래 관련 세금우대 남용 방지	+25	+15	+15	+15	+15
EU지역 외의 통신업체에 대한 VAT 부과	+45	+65	+65	+65	+65
총 세입정책 효과	-165	+475	+1,530	+1,380	+1,485

주: 1. *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

2.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3, Table A.2

- OBR 3월 전망에 따르면 FY2017-18 총경상수입은 7,442억 파운드로 예상되며, 법인세, 자본취득세 등의 세수전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전망치 대비 61억 파운드 상향조정
 - (법인세) 11월 전망 대비 역외(offshore) 세수는 3억파운드 감소하였지만, 국내(onsshore) 세수는 38억 파운드 증가하여 총 35억 파운드 세수 상향조정
 - (자본취득세) FY2016-17 금융자산 매각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FY2017-18 자본취득세 세수전망치를 지난 전망 대비 17억 파운드 상향조정
 - (소득세) FY2017-18 원천징수(PAYE)세액 전망은 지난전망 대비 23억 파운드 증가하였지만, 자진신고(Self Assessment) 세액은 26억 파운드 감소

○ 전망기간 동안 수입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FY2021-22에는 8,695억 파운드로 예상

<표 6> 경상세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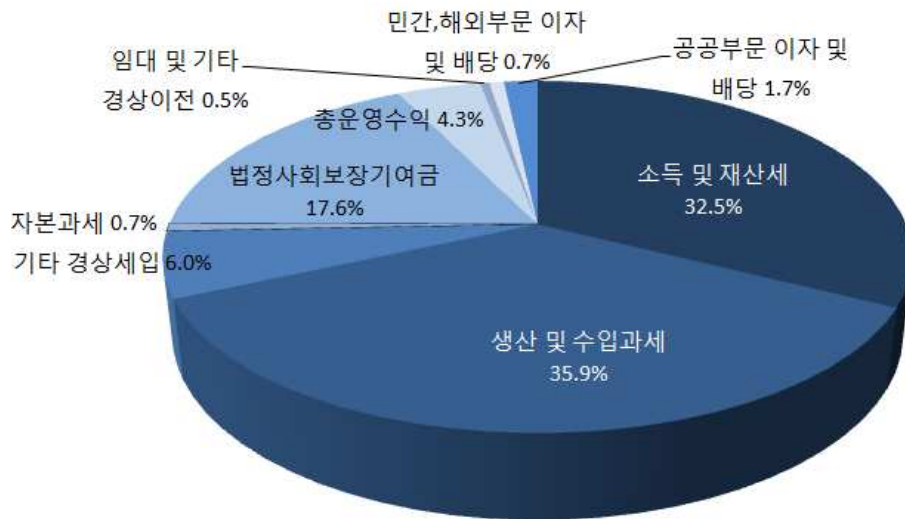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소득세	168.9	174.7	174.9	183.6	191.9	200.6	211.2
국민보험기여금(NICs)	114.1	125.0	130.3	134.5	140.0	146.2	152.4
VAT	116.4	120.7	125.4	130.8	136.2	141.6	146.7
법인세	45.6	53.6	54.1	55.5	54.9	53.9	54.7
석유세	-0.6	-0.6	-0.5	-0.5	-0.5	-0.5	-0.5
연료세	27.6	27.9	27.5	28.0	28.5	29.2	30.0
비거주재산세	28.8	28.8	29.6	31.0	32.2	33.0	33.7
지방세(Council tax)	29.0	30.4	32.1	33.7	34.9	35.9	37.0
VAT 환급(refunds)	14.1	13.8	13.8	13.9	13.9	14.3	14.7
자본취득세	7.1	8.7	9.1	10.0	11.8	11.2	12.8
상속세	4.7	4.7	5.0	5.2	5.5	5.8	6.2
인지세	10.9	11.6	13.1	14.0	14.8	15.9	17.0
인지세(on shares)	3.3	3.6	3.4	3.5	3.6	3.7	3.9
담배세	9.1	8.7	8.9	9.0	9.0	9.0	8.9
산업용주정(spirits)세	3.1	3.3	3.6	3.6	3.8	3.9	4.0
와인세	4.0	4.1	4.4	4.6	4.8	5.1	5.3
맥주 및 과일주(cider)세	3.6	3.6	3.8	3.9	4.0	4.0	4.1
항공여객세	3.0	3.2	3.4	3.5	3.7	3.8	4.0
보험료세	3.7	5.0	5.7	6.0	6.0	6.0	6.1
기후변화세	1.8	1.9	1.8	2.0	2.2	2.2	2.2
기타 국세(HMRC taxes)	7.1	7.4	7.3	7.5	7.6	7.6	7.7
자동차세	5.7	5.8	6.0	6.2	6.3	6.6	6.8
은행세(Bank levy)	3.2	3.0	2.9	2.7	2.7	2.2	1.3
은행추가세(Bank surcharge)	0.4	1.5	1.4	1.4	1.4	1.4	1.5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0.0	0.0	2.6	2.7	2.8	2.9	3.0
면허료 수입	3.1	3.2	3.2	3.3	3.4	3.4	3.5
환경부담금	4.6	6.9	8.7	10.7	11.9	12.6	13.5
EU ETS 경매세	0.5	0.5	0.4	0.4	0.4	0.3	0.4
Scottish taxes	0.6	0.6	0.7	0.7	0.8	0.8	0.9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0.0	0.1	0.1	0.1	0.1	0.1	0.0
설탕세(Soft drinks industry levy)	0.0	0.0	0.0	0.4	0.4	0.4	0.4
기타 조세	6.7	7.2	7.5	7.3	7.7	8.0	8.4
National Accounts taxes	630.0	668.6	690.3	719.2	746.7	771.2	802.0
EU 부담금 공제	-3.1	-3.3	-3.5	-3.5	-3.5	-3.5	-3.5
이자 및 배당	6.2	5.6	6.1	7.6	9.1	10.3	11.8
총운영수지	46.4	47.9	49.3	51.1	52.3	54.7	57.5
기타수입	2.7	2.2	2.0	1.9	2.0	2.0	1.8
총 경상수입	682.3	721.1	744.2	776.4	806.5	834.8	869.5
11월 전망 대비 변화분	2.5	10.5	6.1	8.4	4.8	-0.1	0.4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3, Table 4.6 및 4.7

- FY2017-18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원은 생산 및 수입과세가 35.9%(2,651억 파운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소득 및 재산세 32.5%(2,399억 파운드),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17.6%(1,250억 파운드), 기타 경상세입 6.0%(447억 파운드)등의 순으로 구성

[그림 2] FY2017-18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



출처: OBR, EFO Fiscal Supplementary Tables, 2017.3, Table 2.39

나. 세출

- 봄 예산안에서 도입된 지출정책으로 FY2017-18에 15억 4,500만 파운드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지방정부에 대한 사회돌봄(Social care) 서비스 추가 지원 규모는 12억 파운드로 FY2017-18 지출확대의 대부분을 차지
 - 16-19세 대상 기술교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전망 기간 동안 8억 7천만 파운드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전망
 - 자유학교 설립에 추가적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향후 전망 기간 동안 10억 파운드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전망

<표 7> 2017 봄 예산안 지출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생산성 및 생활수준 향상					
16-19세 대상 기술교육 지원 확대	0	-60	-115	-250	-445
자유학교 확대	-20	-30	-50	-280	-655
학교 투자	0	-130	-130	0	0
경력단절자 대상 인턴십 지원	*	-5	0	-	-
기타 지출	-15	-10	-5	0	0
모두를 위한 경제, 공공지출					
사회돌봄 추가적 지원	-1,200	-800	-400	-	-
국가보건서비스(NHS): 응급서비스 개선	-120	0	0	0	0
국가보건서비스(NHS): 지속가능성 확보 및 개혁	-130	-130	-130	0	0
가정 폭력 및 학대 방지	0	-10	-10	0	0
무료 통학버스 대상학교 확대	0	-5	-5	-5	-5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5	0	0	-	-
기존정책 변경					
세액 공제 채무: 추정 강화	0	+60	+180	+145	+135
Living Together Data Fraud: 데이터 수집 강화	*	+5	*	*	*
자녀 세액 공제 및 유니버설 크레딧: 두자녀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 도입	-5	-15	-35	-55	-70
총 지출정책 효과	-1,545	-1,140	-705	-450	-1,040

주: 1. *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

2.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3, Table A.2

- 3월 봄 예산안의 FY2017-18 총관리지출(TME) 전망은 8,024억 파운드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296억 파운드(3.8%) 증가
 - 11월 전망대비 54억 파운드 증가
 - 경제전망 가정 변화로 인한 영향(15억 파운드) : 인플레이션 가정 변화(24억 파운드), 이자율 가정 변화(7억 파운드), 기타 가정 및 변화(△16억 파운드) 등
 -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39억 파운드) : 연간관리지출 정책변화(26억 파운드) 등
 - FY2016-17에 GDP대비 39.3%였던 총관리지출 비중은 FY2017-18에 39.6%로 약 0.3%p 증가할 전망

<표 8> 총관리지출 전망

(단위 :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경상지출							
자원 DEL	309.0	313.0	318.3	320.8	322.8	328.6	335.3
자원 AME	373.3	382.2	401.2	410.0	416.4	428.6	446.9
사회보장급여	216.1	217.9	221.1	224.4	226.8	231.9	240.3
세액공제	2.8	3.2	3.5	3.6	3.7	3.9	4.0
순공공서비스연금	11.3	11.5	12.1	13.7	13.2	14.2	15.7
국가복권	1.3	1.3	1.3	1.3	1.3	1.4	1.4
BBC 내국 서비스	3.5	3.8	4.0	3.7	3.7	3.6	3.6
철도네트워크	0.8	0.7	0.7	0.2	-0.2	-0.2	-0.3
기타부처지출	1.4	0.7	0.7	0.8	0.8	0.8	0.8
EU분담금	10.5	8.8	11.5	12.6	-	-	-
EU분담금 대체 국내 지출	-	-	-	-	12.7	13.1	13.7
지방재정지출	41.8	43.8	46.6	48.7	49.1	50.5	52.0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APF							
채무이자 삭감	33.4	36.0	41.5	39.1	40.1	40.9	44.0
공기업 채무이자	3.3	3.8	3.9	4.0	4.2	4.3	4.4
감가상각	29.4	30.5	32.0	33.4	34.9	36.6	38.6
경상 부가가치세 환급	11.9	12.1	12.2	12.3	12.3	12.5	12.8
환경부담금	4.2	6.9	8.8	11.0	12.4	13.7	14.6
지방정부 귀속연금	2.0	2.1	2.2	2.3	2.4	2.5	2.6
기타 회계 조정	-0.5	-0.9	-1.0	-1.0	-1.0	-1.1	-1.2
공공부문 경상지출	682.4	695.1	719.5	730.9	739.2	757.2	782.2
자본지출							
자본 DEL	43.0	46.2	49.0	52.2	55.4	64.3	67.7
자본 AME	28.6	31.5	33.9	34.1	33.3	33.9	36.4
세무소송	0.0	0.0	1.6	1.6	1.6	1.6	1.6
철도네트워크 자본지출	6.4	6.5	5.8	5.7	6.4	6.5	6.7
기타 자본지출	0.5	1.0	1.3	1.6	1.9	2.4	2.7
지방재정 지출	7.3	7.7	7.2	6.4	5.8	5.0	5.5
공기업 지출	14.5	17.1	18.5	19.2	18.2	18.5	20.0
회계 조정	-0.1	-0.8	-0.5	-0.4	-0.6	-0.2	0.0
공공부문 총투자	71.6	77.7	82.9	86.3	88.7	98.2	104.1
감가상각 공제	-40.0	-41.2	-42.8	-44.4	-46.0	-48.0	-50.2
공공부문 순투자	31.6	36.5	40.1	41.9	42.7	50.2	53.9
총관리지출	753.9	772.8	802.4	817.2	827.9	855.4	886.4
11월 전망 대비 변화분	-1.8	-6.0	5.4	2.7	4.2	-0.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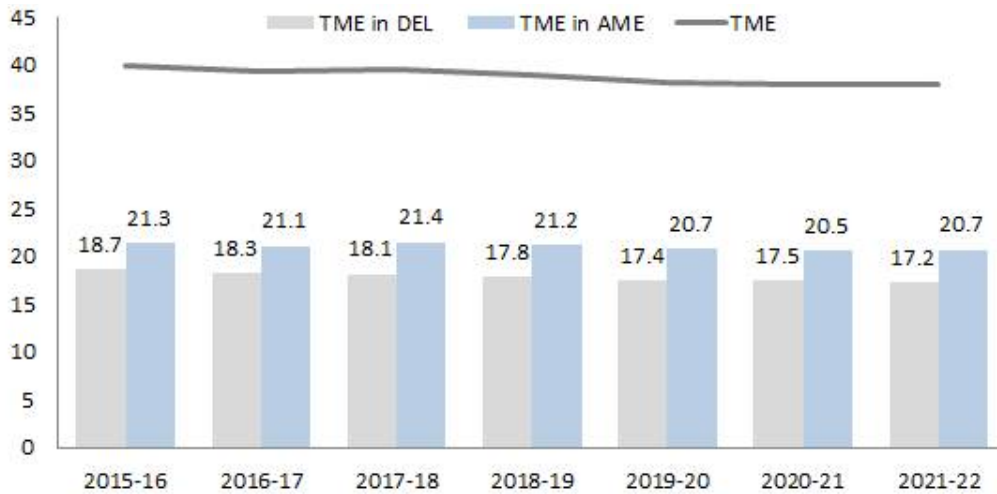
주: 총관리지출(TME)은 공공부문 경상지출(자원 AME+자원DEL)+공공부문 총투자(자본 AME+자본 DEL)로 구성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3, Table 4.16 및 4.17

- GDP대비 총관리지출(TME) 비율은 부처별지출한도(DEL) 및 연간관리지출(AME) 비중의 감소로 인해 향후 하락추세를 나타낼 전망
 - FY2017-18 GDP대비 총관리지출(TME) 비율은 연간관리지출(AME) 증가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나,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며 FY2021-22 37.9%까지 감소
 - FY2015-16 GDP대비 18.7%였던 부처별지출한도(DEL) 비율은 FY2021-22에 17.2%로 감소하며, 21.3%였던 연간관리지출(AME) 비율은 20.7%로 감소
 - 총관리지출(TME) 비율 하락은 주로 자원 DEL 감소(GDP대비 $\Delta 2.1\%p$)와 복지 지출 삭감(GDP대비 $\Delta 1.2\%p$)에 기인하며, 자본 DEL 증가(GDP대비 0.6%p)로 다소 상쇄될 전망

[그림 3] 총관리지출(TME)의 규모와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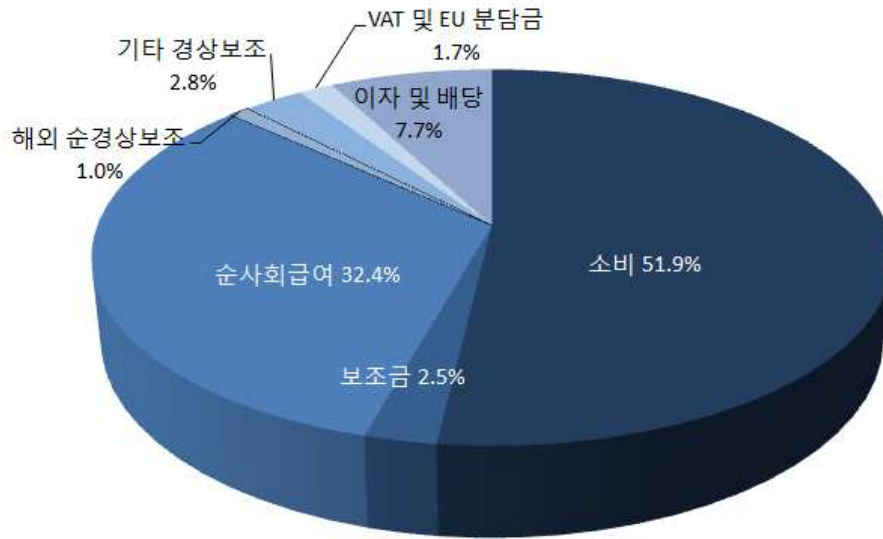
(단위: GDP대비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3, Table 4.15

- FY2017-18의 일반정부 기준의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정부소비가 51.9%(3,785억 파운드), 순사회급여가 32.4%(2,365억 파운드)의 높은 비중을 차지
 - 그 밖에 이자 및 배당지출이 7.7%(564억 파운드), 기타 경상보조금 2.8%(207억 파운드) 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그림 4] FY2017-18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지출규모



자료: OBR, Fiscal Supplementary Tables, 2017.3, Table 2.39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³⁾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

- 2017 봄 예산안에서는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운용계획 중 디지털통신, 교통, R&D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투자계획을 발표

<표 9>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투자 계획

(단위 : 백만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주택					
Housing Accelerated construction	285	635	665	380	*
Affordable housing	1,120	1,125	880	340	*
Housing Infrastructure Fund	60	300	945	1,425	*
교통					
TransportRoads and local transport	365	500	430	650	*
Next generation vehicles	75	100	110	115	*
Digital railways enhancements	30	55	165	285	*
Cambridge-Milton Keynes-Oxford corridor	5	135	0	0	*
통신	25	150	275	290	*
연구개발	425	820	1,500	2,000	*
총 계획	2,390	3,820	4,970	5,486	7,000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6*, 2016.11, Table 3.1

- (디지털통신) 차세대 모바일 기술과 광대역통합망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FY2020-21까지 7억 4천만 파운드를 투입
- (교통) 가을보고서에서 11억 파운드의 교통분야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봄 예산안에서 이를 보강
 - 지방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6억 9천만 파운드의 자금이 추가로 배정되며,

3) 영국 정부는 2016년 11월 가을보고서에서 FY2017-18년부터 FY2021-22년까지 총 230억 파운드의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 운용계획을 발표함

이중 4억 9천만 파운드는 2017년 가을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

- 교통혼잡 구간 해결을 위해 2억 2천만 파운드의 NPIF를 도로건설에 투자
- (연구개발) 47억 파운드 규모의 기존 R&D 강화계획을 보장하기 위해, 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ISCF) 등을 신규 도입
 -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신약개발 등 과학기술과 산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ISCF)를 조성하고 2억 7천만 파운드를 FY2017-18에 투입
 - 향후 4년간 1,000개의 박사과정을 추가로 신설(9천만 파운드)하고 연구장학금을 확충(1억 6천만 파운드)

□ 생산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하는 기술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

- 정부는 견습생제도(Apprenticeship)⁴⁾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2017 봄 예산안에서 'T-levels'를 도입하는 등 기술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대
 - T-levels 제도 도입 : 16-19세를 대상으로 하는 15개 부분의 기술교육 시간을 연평균 900시간으로 증가시키고, 산업현장에 적합한 직업훈련 시스템 마련
 - FY2019-20부터 5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인문계대학 학생과 동일하게 기술전문 대학 학생에 대해서도 학자금(maintenance loan)을 제공
 -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예산을 확대하고, FY2018-19까지 기술 및 직업재교육에 4천만 파운드, 경력단절자 대상 인턴십 지원(Returnship)을 위해 500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
- 가을보고서에서는 자유학교(free school)⁵⁾ 추가 설립을 위해 매년 5천만 파운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봄 예산안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

4) 2016 예산안에서 도입된 제도로, 연간 급여총액이 300만 파운드를 넘는 기업에 대해 급여총액의 0.5%를 견습세(Apprenticeship Levy)로 부과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0년까지 견습직 300만 개를 창출할 계획

5) 2011년에 시작된 제도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나 민간이 설립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 지역교육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7년간 운영결과 검토 후 학교로 인정

- 학부모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2020년까지 3억 2천만 파운드를 투입하여 자유학교를 증설
-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2억 1,600만 파운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여, 이번 의회 말까지 총 100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

□ 가을보고서에서 수립한 법인세 인하계획⁶⁾을 유지하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

- 과학, 연구 및 혁신 관련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을 명확화·간소화하여 관련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예정
-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 부담 경감을 위해, 11월 가을보고서에서 발표한 36억 파운드 외에 4억 3,500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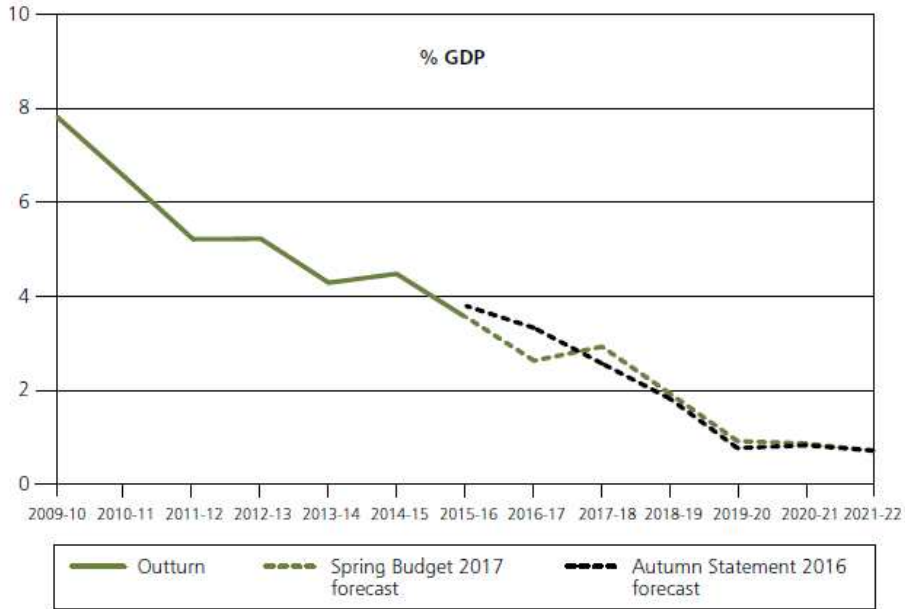
나. 재정건전화

□ 11월 가을보고서에서는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정목표(Mandate for fiscal policy)를 규정

- 재정목표(Fiscal Mandate)
 - FY2020-21까지 GDP대비 구조적 재정수지적자를 2% 이하로 감축
- 보완적 재정목표(Supplementary Target)
 - FY2020-21에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을 하락세로 전환
 - FY2021-22 복지비용이 가을보고서에서 설정한 복지지출 상한선(welfare cap and margin)을 준수

6) 2016년 11월 가을보고서에서 2017년 19%, 2020년 17%의 법인세 인하계획을 제시

[그림 5] 공공부문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전망



출처: HM Treasury, *Spring Budget 2017*, 2017.3, Chart 1.3

- 공공지출 통제와 집행 효율성 개선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 노력 지속
 - 재정지출 우선순위분야(국방, 해외원조, 잉글랜드 지역의 국가보건서비스 및 교육지원, 경찰행정, 과학)를 기반으로 지출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
 - 2017년부터 '효율성 검토'(Efficiency Review)를 실시하여 지출통제 강화
 - 이를 통해 FY2019-20까지 35억 파운드의 자원절감이 기대되며, 이중 10억 파운드는 지출우선 분야에 재투자될 예정
 - 가을보고서에서 설정한 복지지출 상한(Welfare Cap)을 준수하며 복지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 FY2021-22에 적용될 복지지출 상한은 1,260억 파운드이며, 불가피한 복지지출 변동성에 대응한 margin(3.0%)을 적용할 경우 실질 지출한도는 1,297억 파운드

<표 10> 복지지출 상한

(단위 : 십억파운드)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Cap	-	-	-	-		126.0
Interim pathway	119.8	119.6	120.1	120.5	123.2	-
Margin (%)	0.5	1.0	1.5	2.0	2.5	3.0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6*, 2016.11, Table 1.6

다. 기타

- '사회돌봄'(social care)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20억 파운드 자금을 지방정부에 배정
 - '사회돌봄'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노령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의료비 지출 증가 압력을 완화
 - 봄예산안의 FY2017-18 재정확대 예상 규모(17억 파운드) 중 상당부분이 '사회돌봄' 확대정책에 기인
 - 20억 파운드 자금 중 10억은 FY2017-18에 투입되며, 나머지 10억은 다음 두해에 걸쳐 배정될 예정

<표 11> 지방정부에 대한 사회돌봄 지원 계획

(단위 : 백만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총 계획	101	674	337

출처: 지역사회 지방정부부 보도자료, 2017.3.9

- 향후 3년간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4억 2,500만의 자금을 투입하여 NHS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
 - 보건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지방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간 Sustainability and transformation partnerships(STPs)를 설정하고 3억 2,500억 파운드 자금을 배정

7) '사회돌봄'(social care) 서비스는 소득이 연간 2만 3,250 파운드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 응급시설 확충과 환자 대응 속도 개선 등 응급서비스(Accident and Emergency) 향상을 위해 1억 파운드의 예산이 FY2017-18에 반영될 예정
- 근로 가정 지원을 위해 면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상 보육서비스를 확대
 - 정부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근로 가정에 면세 보육서비스(Tax-Free Childcare)를 제공
 - 어린이당 연간 2,000 파운드의 보육비용 절감 효과 발생(장애아동일 경우 연간 4,000파운드 절감)
 - 2017년 9월부터 2~3세 유아를 둔 근로가정에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서비스 제공
- 국가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 2017년 4월부터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시간 당 7.2파운드에서 7.5파운드로 인상
 - 21~24세 최저임금(National Minium Wage)을 6.95파운드에서 7.05파운드로 인상하며, 18~20세는 5.55파운드에서 5.6파운드로, 16~17세는 4파운드에서 4.05파운드로 각각 인상